



정 창 국
(대한수의사회 회장)

경쟁 사회에서의 양돈인의 삶



어렸을 때의 기억이다. 우리 세대(世代)가 자라던 시절은 식생활이 극히 조잡했다. 육류(肉類)는 일년 내내 손꼽을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 내가 살던 고장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국경이 접해 있어서 중국인들이 같은 마을에 끼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채소농사를 짓고 있었다. 중국인 집에는 으레히 한 두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식구들이 먹다 남은 잔반(殘飯)이 주 사료였다. 그러나 중국집 돼지는 우리가 키우는 조막만한 토종돼지에 비해 체구가 컸고 성장속도도 빨랐다. 이들 돼지는 초겨울에 도살하여 창고에 매달아 놓으면 영하 20~30도로 계속되는 겨울동안 자연냉동되어 겨울내 식탁에 오른다.

마을의 변두리를 벗어난 곳에 20~30두의 돼지를 전업으로 키우는 집들이 있었다. 주로 養豚을 업으로 하는 집들이다. 이들은 조석으로 고량주 양조장에서 술찌꺼미와 식당을 돌아 다니면서 잔반(殘飯)을 큰 통에 모아 리어커로 운반한다. 리어커는 주인이 끌고 부인이 밀고 간다. 누추한 차림의 부부가 부창부수(夫唱婦隨)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성실과 근면의 표본이다. 해방후 어려운 경제조건하에서는 주로 소규모의 잔반(殘飯) 급여식 양돈업이 성행했다. 시내의 식당마다 잔반(殘飯) 쟁탈전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그 시절의 養豚人의 삶은 극히 고달프고 어려웠지만 돈가의 하락이나 배합사료의 파동 등으로 입은 고충같은 것은 없었다.

60년대의 일이다. 서울근교에 농장을 구입한 장모가 養豚을 시작하겠다고 종돈구입의 부탁을 해왔다.

종축장, 농대, 소사 등지에서 어렵게 듀럭, 뉴 햄프사, 렌드레이스, 요크샤 등 7~8두의 종돈을 사드렸다.

장모는 동대문 근처 식당에서 잔반(殘飯)을 거두어 삼륜차(三輪車)로 운반했다. 장모는 물론 양돈지식이 없는 분이다. 그러나 매사에 부지런했고 나름대로의 사육방법을 열심히 연구했다. 예방접종은 내가 책임지고 때 맞추어 해주었지만 병이 나거나 난산(難産) 때에도 으레히 나를 불러내어 치료를 부탁했는데 나로서는 좀 곤욕스러운 일이었다. 분만일이 가까워 오면 남포불을 밝히고 돈사 앞에서 불침번을 서다시피 하였다. 이무렵 장모의 화제는 온통 돼지에 관한 것이었다. 토실토실한 자돈이 분만되면 그 곁을 떠날줄 몰랐고


**사료가의 상승추세, 축산물 수입자유화의
 거센 물결앞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일반
 사양관리 개선과 질병예방 기술의 향상이다. 바이러스성 질병이
 원인이 되는 세균성 유산·사산을 예방하고 번식장애에
 기인하는 자돈생산 감소를 방지함은 물론 모든의
 유방염, 산전·산후 사고방지를 최소화
 시켜 경제적 수익을 높여야……**


좋은 값을 받고 팔았다. 장모의 양돈장은 순종자돈을 파는 집으로 금새 소문이 났고 약금(約金)을 맡겨놓고 가는 이도 많았다. 물론 혈통증명서 같은 것은 없다. 장모는 양돈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고 양돈업으로의 큰 신장도 없는채 끝났지만 여인의 작은 소원은 달성시킨 셈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당시 장모가 보인 돼지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근면·절제의 정신을 높히 평가하고 있다.

근래는 수만두를 사육하는 기업양돈가가 많다. 전적으로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현대의 양돈형식은 어느 면에서는 불안을 느끼게 한다.

우리의 교역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시장개방압력을 끈질기게 가하면서 원화의 가치를 계속 끌어 올리도록 강요한다. 원화의 가치가 오르면 수입상품값이 싸져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구매량의 증가로 수입은 저절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수출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불에 대한 원화환율은 이제 700원대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 환율은 수입과 수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수출하는 돈육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한편 시장개방압력으로 이미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었고, 앞으로는 돈육제품을 포함한 축산물의 수입도 뒤따를 것이 예상되어 불안하다. 게다가 곡물사료의 수입선인 미국이 한발로 인해 곡물이 크게 감수될 전망이므로 사료곡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할 추세에 있다.

사료가의 상승추세, 축산물수입자유화의 거센 물결앞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일반 사양관리의 개선, 질병관리기술의 향상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이 원인이 되는 유산세균성 사산을 예방하고 번식장애에 기인하는 자돈생산 감소를 방지하며, 모든의 유방염산전·산후의 사고방지를 최소화시키므로써 우량한 자돈의 효율적 생산을 높혀 경제적 수입을 보다 증가시키는 일이 현재의 위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